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자

제21호 [루계 제2224호]

주제 102

(2013). 5

18

토요일

음력 4. 9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전략전술사상을 제시하시고 영활한 창작방안들과 전법들을 창시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들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고 희세의 전략가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풍모가 그대로 안겨오게 형상을 정말 잘하였다. 사진문화를 보는것만 같다고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상작품창작에 뜨거운 지성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 있는 창작사일군들과 창작가들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적

인 미술작품들은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수령형상작품창작과 주체미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수령형상작품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홀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강태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진실현정과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외부를 보시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벽면

처리를 잘하고 구내에 휴식장소도 구색이 맞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된 멋쟁이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조립장, 기계공장, 정보실, 설계실, 기술공정실, 전자도서실 등에 들리시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기계제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새 기계제품의 정밀화, 경량화, 지능화실현정형을 료해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공장이 마음에 든다고, 생산을 시작하면 그 은이 단단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새 기계제품개발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도달해야 할 전망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안에 건설된 식당,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

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기계공장은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국제적열의와 혁신성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2월 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입구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판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혁신적으로 투쟁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루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맛내기직장, 기초식품1직장과 2직장, 빠다직장, 즉석쌀밥직장, 종합가공직장, 제풀진렬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장들의 생산공정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매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생산능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식당에도 들리시여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신 후 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말려진 영예로운 임무를 홀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히설주동지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장내에 떠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공연 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영원한 그 미소》, 너성독창과 합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남성2중창과 합창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무용 《삼지연못가에서》, 남성3중창 《아름다운 고향》, 너성3중창 《새봄을 노래하네》, 어은금과 손풍금 2중주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트럼펫과 남성독창 《어버이풀이여》, 너성기타 《번영하여라》로동당시대》, 남성기타4병창 《번영하여라》로동당시대》, 너성독창과 합창 《승리자들》, 설화시 《원수님 계신다》,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민의행복》, 고음저대와 하모니카중주 《모란봉 닐리리야》, 어은금병창과 소합창 《운명도 미래도 말진분》, 너성독창과 소합창 《단술에》, 무용 《행복의 니나니 난노》, 씬스폰과 남성독창 《사랑에 대한 생각》, 너성독창 《믿어다오 조국아》, 남성기타4병창 《번영하여라》로동당시대》, 너성독창과 합창 《번영하여라》로동당시대》, 너성독창과 합창 《승리자들》, 설화시 《원수님 계신다》,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지는 열화같은 흠토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무군협주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적문제들에 홀륭한 대답을 주는 인식교양적이며

작품들을 창작하여 생기발랄하면서도 정신이 번쩍드는 최상급의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무군협주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장병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4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제4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9일과 10일 중앙경공업체품전본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나라의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때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각지 공장, 기업소, 과학, 교육기관들에서 창안제작한 270종에 2,600여점의 의료설비가 출품되었다.

전문의료기구생산단위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

놓은 심전계, 뇌파계, 프로그램식인 공심장박동조종기를 비롯하여 종전보다 치료효과를 높일수 있게 만든 설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로동당정책의 요구대로 생산지표를 늘리고 질을 높여온 김정숙령양제사 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함흥금속의료기구공장에서 출품한 항은수유조, 견열멸균기, 병합실, 구강프레스 등 치료기구와 첨단설비들, 의료용소모품들로 전시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출품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5.18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광주인민봉기는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외세를 등에 업은 군부과 쇄통치세력들의 폭정에 시달리며 시달려온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광주의 청년 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양기는 물려가라!》는 구호를 내들고 대중적인 무장인민봉기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18광주인민봉기에서 뒤돌아놓았으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널뛰기를 메아리로 남기었다. 그러나 광주인민봉기가 그토록 열망하고 펴로써 역사에 새긴 자주, 민주, 통일의 그 널뛰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친미사대에 물젖은 혁대장남도와 전라북도의 넓은 지역으로 급속히 번져갔다. 광주인민들의 무장항쟁에 걸친 미국은 수많은 남조선군부력을 봉기진압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항공포함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남조선수역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군사파쇄도당의 탄압작전을 군사적으로 뒤틀쳤다. 미국의 사축밀에 전두환군사총도당은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하면서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수도당을 내몰아 며칠사이에 무려 5,000여명의 봉기자들을

오늘도 불리는 광주의 널뛰기

학살하고 1만 4,0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치열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대중적학살만행이 감행된 광주시를 가리켜 《괴의 폭우탕》이라고 하였는가.

광주인민봉기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감행된 군사파쇄도당의 악수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악랄하게 모해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도 《종북세력》의 소행, 인터넷에 바른 말을 유퍼렸다고 《종북세력》, 진보단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발의...

지어 얼마전에는 《보훈처》를 내세워 광주의 널,

민주의 상징으로 알려진 노래 《남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에서는 규정한 것은 광주인민봉기란 암이후 처음이였다. 지금 남

5.18혁사지우기》, 《민주주의를 보도록 하는 처사》,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라는 강력한 항의가 비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을 등에 업고 광주를 펴바다에 잡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그 무슨 《종북세력》의 척결을 떠들며 제2의 광주사태도 서슴지 않을 기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군부는 이미전에 《명확한 대책판과 안보판을 확립할 필요성》의 미명하에 《종북세력 척결》을 제정한 대책판과 안보판을 확립할 것을 만들어 각 부대들에 배포하였다. 남조선군부가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광주인민봉기란 암이후 처음이였다. 지금 남

본사기자 김련옥



온 나라에 사철푸른잔디를 널리 퍼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에서-



남조선사회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인민봉기자들

새로운 병진로선은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 그 심화 발전

공화국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지난 세기 60년대에 제시된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다.

이로선은 경제국방병진로선에 일관되어 있는 자주의 원칙, 선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인민의 북리를 위한 공화국의 투쟁목적을 그대로 내세우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신사업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수령님께서 병진로선을 천명하시고 자립적 민족경제와 함께 자위적 국방력을 마련해 주시었기에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이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타락한 선군정치로 치열한 반미핵대결전을 편전련승으로 이끄시면서 핵보유의 대업을 이루하시여 공화국을 지켜내고 강성국가건설에도 도약 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였다.

오늘 공화국이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

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기의 신념과 의지, 배짱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해 주신 강위력한 핵역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암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한세기전이나 오늘에나 미국의 전횡과 강권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공화국을 위협하고 침략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정식하였다.

이로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아들이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끊끗이 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구현되어 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경제국방병진로선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

방력강화, 바로 여기에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을 심화발전시킨 새로운 병진로선의 근본특징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더할 수 있게 한다.

핵무기는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 규모에서 행진을 이어온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핵무기로 보유국들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그 어디에 있든 핵무기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며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

제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물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인민들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항구적으로 들어워 반미전면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갈 것이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

공화국의 핵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거래는 근 70년 동안이나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분열은 조선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투쟁의 장에 물로 되고 있다. 더욱 기념선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면서 핵무기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대조선고립압

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존재와 발전은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 패들이 수십만의 병력과 최신공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벌려놓고 있는 침략전쟁연습이 핵전쟁에로 번져지지 않은 것은 공화국이 침략세력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단호히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제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침략과 강제로 일삼고 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공화국에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얹쳐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강위력한 핵무력 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민족의 밝은 앞날도 있다.

본사기자 리경순

핵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우리 민족이 핵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공화국의 핵은 협상탁우에 윤리놓을 정치적 흥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며 억만금 파도 바꿀 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지금 남조선의 당국자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공화국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 『도발을 중지하라』는 잠교대 같은 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외세의 통락물로 침략의 희생물로 몰아버려는 추악한 사대국적,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화국의 핵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위험한 보검이다. 공화국이 핵보검을 억제해 줄려는 추악한 사대국적,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있다. 김장호

시청과 대변인이 저지른 사상초유의 성추행 사건의 파장으로부터 국민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혼사대로 하여 교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남측기여가들과 근로자들의 아픔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저들의 피해관계와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성공업지구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공화국은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핵위력에 대한 민족적 권리와 자부심을 안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파감히 물리치며 민족최대의 속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여해 안아오고 애달것이다.

온 겨레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위력에 대한 민족적 권리와 자부심을 안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파감히 물리치며 민족최대의 속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여해 안아오고 애달것이다.

김장호

개성공업지구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누구인가

북남관계가 전시상황에 처하고 북남사이에 아무리 한 대화통로도 통신수단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출입도 국히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과 어울린다.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공

본색을 계속 드러낸 조건에서 공화국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하고 공업지구사업을 광장중단하는 중대조치를 취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정당하다.

사태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서울한복판에서 그것도 북의 명절날에 『어버이연합』의 늙다리 멀기지들을 비롯한 우익보수깡패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란동을 또다시 부리였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 것은 『대화』를 떠들면서 그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남측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지난 4월 25일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날 오전까지 공업지구와 관련한 저들의 『대화체의』에 답변이 없으면 『종대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을 『최후통첩식』 성명을 통하여 헣나발을 끌어대며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모독해나섰다.

이에 대해 공화국은 지난 3월 30일 경각에 달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하여 털려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개성공업지구를 북의 『돈풀』이니 하는 헛나발을 끌어대며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모독해나섰다.

이에 대해 공화국은 지난 3월 30일 경각에 달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하여 털려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지난 4월 25일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날 오전까지 공업지구와 관련한 저들의 『대화체의』에 답변이 없으면 『종대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명백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다.

파연 개성공업지구가 남측보수언론들이 표현한대로 북에 대한

제반 사설들은 현 남조선당국이 이 기회에 개성공업지구를 아예 질식시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명백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와 행동은 최근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 남조선집권자가 제일 앞장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를 걸고 공화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는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 각계가 이 갑작스런 회담제의를 두고 현 집권자의 미 국행

을 예상해 볼 때, 차라리 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힘으로 세계 만방에 우뚝

올라서는 공화국에 대해 감히 훈시질하는 것만 보면 남조선은 결코 그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 사이의 회담이 7일 워싱턴에서 있었다. 거기서 두 당국자는 한목소리로 북이 핵을 포기하고 『다른 길』 즉 『개혁, 개방』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의 변화』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역설하였다.

그리면서 미국상전은 『만마식개혁』에 대해 훈시하였고 남조선당국자는 감히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해 어찌나 저지어하면서 『옳바른 선택』을 운운하였다.

백악관에서 울린 상전과 하수인의 역겨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다른 길』이니, 『개혁, 개방』이니, 『변화』니 하는 것들은 김빠진 풍선소리와 같은 것으로서 공화국에는 통하지도 않고 통할 수도 없는 뉘거리유혹이다.

이미 미국과 남조선의 고위인물들이나 대북전문가들은 『북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존중을 받으려면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느니, 『변화만이 살길』이니 하며 장마철 개구리마냥 떠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조성하고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간 책임에 대한 회피이고 감히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찌보려

백악관에서 울린 역겨운 목소리

는 날강도적인 기질을 보여준 것 외 아무것도 아니었다.

미국상전이 『다른 길』을 말하면서 『만마식개혁』을 권고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나 통일부 장관 등도 이미 전에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

미국은 만마가 『개혁, 개방』을 하면 『제재』 해제와 『관개개선』 등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만마나 그 나라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저들의 지배권 안에 만마를 걸어놓기 위한 미국의 솔책이였다.

그 『약속』의 대가로 만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동시에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미국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것이다.

2011년 12월 미국무부 특사가 남조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 등을 지키지 않으면 만마와의 관계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결코 취종의 객담이나 실언이 아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

들에게 리익이 없으면 서슴없이 차단하겠다는 흥심의 표현이다.

리비아의 교훈이 그것을 실증해 준다.

리비아도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확실하고 옹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유혹에 넘어가 2003년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한 리비아의 운명은 어떠했는가.

미국은 핵포기의 대가로 마치 리비아에 큰 경제적지원을 줄것처럼 떠들었지만 계속 랙대하였다.

그런가하면 무장해제된 리비아에서 내부의 반란세력을 부추겨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는 『대량살상』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2011년 3월 8개월간의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초토화하였다.

이것이 핵포기를 한 리비아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대접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 당시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미국이 리비아와 협상하여 핵과 화학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결코 취종의 객담이나 실언이 아니다.

공화국의 자위적핵무력은 자기의 자주권을 지키고 경제강국으로서는 『리비아의 비핵화』

화와 개혁움직임이 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리비아식 개혁, 개방』은 『안전담보』와 『관개개선』을 미끼로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였다.

그것이 만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공화국을 포함하여 이란과 수리아 등 반미적인 나라들을 교살하기 위한 『모델』로 내세워지고 있다.

『만마식』 이든, 『리비아식』 이든 미국과 남조선의 동족대결 세력이 말하는 그런 길은 유혹과 강요로 자위적무장력을 포기하게 하고 종당에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도 지킬 수 없게 하는 재난의 길, 예속의 길이다.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권고』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명령 백백하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공화국의 정당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에 대해 혀가 돌아가는데 떠들어댄 남조선당국자들의 친자식이다.

남조선당국자가 청와대 안방에서 『북의 변화』, 『핵포기』를 운운할 때부터 친미사대와 동족

대결로 연명하는 수구보수의 유

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다건너에 넘어가서까지 미국의 비지가랭이를 불잡고 대결의 치마바람을 일으킨 남조선당국자의 행동은 그의 추악한 본성을 더욱 드러낸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공화국의 그 무슨 『급변사』를 가장하여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15』를 짜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반공화국적세력이 공화국이 잘되어 좋은 걸, 좋은 식을 제시해 줄리는 만무하다.

부언하건대 『다른 길』이니, 『만마식개혁』이니, 『지원』이니 하는 따위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절대 통할 수 없다.

그런 걸, 그런 식은 말그대로 공화국의 존엄높은 제체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전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 『만마식』을 운운하는 미국의 궁극적목적은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침략의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그에 빌붙어 남조선의 동족대

결세력은 세기를 이어 품어온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그걸, 그런 식은 순수 미국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길이며 미국에 얹어야 산민지예속에서서 허우적이는 남조선식을 따르라는 강요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자기의 길, 자기의 식이 있다.

그들이 구태여 어떤 길을 가리켜주지 않아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이미 자기가 확신 있게 선택한 가장 옳은 길인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이 있으며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혁신적위업을 앞당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있다.

강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는 것이 공화국이 선택한 길이며 세계가 경탄하는 주체식이다.

참새무리가 봉황의 뜻을 모른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상전과 그를 무력대고 따르는 암둔한 하수인이 비린청을 고아낸다. 백악관에서 울린 역겨운 목소리, 그것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전주곡일뿐이다.

김정혁

봉건사회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있는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의 『조공』 행각으로 되고 말았다.

줘서 나쁘다는 사람 없다 더니 『성의것』 준비한 『조공』 보따리가 미국상전을 흐뭇하게 했다.

이번에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상전들에게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여행방안』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맹약하여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에 대한 남조선에对自己的 수출활로를 열어놓았다.

『안보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약속』 했다.

대량적인 미국무기 구매에 대한 보답이고 추가구매에 대한 답보라고 볼 수 있다.

날로 격화되는 조선반도 전쟁위기는 미국이 남조선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다.

이미 남조선 『정부』는 『F-35』 전투기 60여대,

『아파치』 공격용직승기 36대,

고성능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등 각종 미국무기 도입으로 수십조원의 혈세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하여 미심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 『정부』는 미국제무기수입고객으로서 또 한 번 미국에 인사치례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동맹』 강화로 남조

선을 북침전쟁수행의 『돌격대』로 굳건히 내세웠으

며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 조달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높였다.

재정난에 부닥친 미국으로서는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미국행각으로 적지 않은 청

『남조선집권자는 당선후 미국을 꼭 한번 방문한다. 마치 봉건시대의 제후가 종주국의 왕을 방문하는 듯하다. …자진심을 팔아먹는 행위는 백해무익이다. 그런데 왜 남조선의 집권자들은 폐의 없이 이런 짓을 하고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옳은 지적이 다. 현 당국자는

집권후 제일 먼저 미국을 찾아가 많은 공물을 『조공』 하였고 그 대가로 전 리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을 다시 포장하여 내건 자기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승인받았다.

『국정원대급사건』이라는 특대형범죄로 『정권』 그자

체마저 혼들리는 판에 상전인 미국의 승인과 지지를 받았으니 그로서는 다행이다.

먼 후날에도 우리 후손들은 남조선의 집권자들이 반세기 이상 민족의 리익을 팔아 타민족이며 침략자인 미국을 종주국으로 섬겨온데 대하여 두고두고 저주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가 『정권』 유지와 안보를 위해 혈세로 이루어진 『조공』 보따리나 들고다니고 전 리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을 다시 포장하여 내건 자기의 『아시아의 철의녀인』이 아니라 『철이 없는녀인』으로 혁신에 수치스러운 기록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제를 한 셈이다.

강권과 외교를 동원해 술 한 품을 들어야 쟁길수 있는 미국의 리익을 스스로 찾아와 전쟁했으니 『기록한 소행』이라고 할 수밖에.

남조선의 한 전직교수는 집권자의 미국행각과 관련하여 자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제를 한 쟁각하는 모양이다. 어디 이뿐인가.

그는 미국의 회의에서의 연설도 조선말이 아닌 영어로 하였다고 한다. 자기의 친미사대 굴종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판은 남조선당국자가 미국을 행각할 때 세계를 아연케 하는 대 표단소속인원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예로부터 폐의도덕이 밝기로 이름난 조선민족의 미풍랑 속을 어지럽힌 이번의 사건은 한 마디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배치되는 양키식문화, 웨폰문화로 혼탁된 식민지문화, 성추행문화를 세계에 널리 광고하고 모자라 그 무슨 『한류문화바람』을 떠들며 『성파』라고 자자화찬하고 있으니 조선사람으로서는 낫만 뜨거울 따름이다.

결국 윤창중이 남조선으로 쫓겨나고 청와대에 대해서 해외 대변인에서 해

류영철(재중동포)

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명백히 현 집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집권자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창중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건이 초래된 것이라고 조소하였다.

성명은 지난 7월 7일 집권자의 미국행각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으며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초래된 것이라고 조소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위로 경찰이 출동하고 외국언론들이 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윤창중이 남조선으로 쫓겨나고 청와대에 대해서 해외 대변인에서 해

본사기자 서희

워싸고 공사중단한의 시위를 벌리던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사

유적들이 심히 파괴되는 것으로 하여 각계의 항의와 규탄을 자아냈다.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보수집권세력들은 리명박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며 평화로운 제주도를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주는 전초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실현을 위해 남조선당국은 파

지은 해군기지의 침략적성

격과 위협성이 여러 기회에 폭로되고 생태환경과 문화유적들이 심히 파괴되는 것

으로 하여 각계의 항의와 규탄을 자아냈다.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보수집권세력들은 리명박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며 평화로운 제주도를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주는 전초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실현을 위해 남조선당국은 파

공권력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제주해군기지』를 자아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공사장을 원활히 손안에 두고 쥐락펴락하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이런 종주국과 속지간의 관계는 철두철미 수직관계일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을 업고 미국의 발밀에서 사대와 친미로 양명하는 것은 남조선정치가들의 어쩔 수 없는 속명이다. 미국남조선간의 이러한 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사

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때 까지 무기한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도에 조성된 사례는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더욱 전락시키고 사

회를 보수화, 파쑈화 하려는 현 보수당국의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족적인 책동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서명수

어느 호택식당에서..



새로 개업한 식당배 《대동강》호를 타고



봉— 경쾌하게 배고동소리를 울리며 한척의 배가 서서히 잔교를 출발한다.

배에 탄 사람들은 물론 기숙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손을 훔들며 화답한다.

지난 4월 말 식당운영을 전용으로 하는 식당배 《대동강》호가 새로 개업하였다.

인민봉사총국 국장 김윤택은 배가 진조된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받드시여 식당운영을 전용으로 하는 유람선을 진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했던 그때에 새로 진조하고 있는 《대동강》

호를 돌아보시였으며 그후에도 배의 관리운영체계와 인민들에게 봉사할 료리, 청량음료의 가지수, 서비스와 원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며 깊은 관심을 표시하시었습니다.』

새로 진조된 식당배 《대동강》호는 외부와 내부가 현대적미감에 맞게 홋팅하게 꾸려져 사람들의 호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 안에는 한꺼번에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8개의 식사실과 1, 2층 선미와 2층 선수에 야외식사실 그리고 연회장, 상점 등이 갖추어져있다.

1층홀과 2층홀을 연결하는 라선식계단과 강물결을 련상케 하는 식사실안의 벽장식과 천정장식, 독특한 무리동장식, 주변풍치를 부각할수 있게 시원하게 낸 창문들, 여러가지 형태의 식탁들과 의자들…

어느것이나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품을 들여 설계하고 꾸렸다는것이 알린다.

식당배 《대동강》호는 하루에 두번 기숙을 떠나 유통교와 대동교사이를 오간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평양시풍경을 부감하며 식사도 하고 유람도 하는 멋이란 그 어데 비길수 없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도 배에 많이 오른다고 《대동강》호의 접대원인 조옥희녀성은 말한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식당배 《대동강》호가 공화국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서 *

사
랑
의
념
체
나
국
에
서

실은 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에 왔던 해외동포녀성들은 여기를 돌아보고 너무 놀라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홋팅한 치료조건과 환경을 갖춘 병원의 하루 입원비만 해도 3 000~6 000US\$라고. 그런데 조국에서는 든 한푼 안내고 누구나 치료받을수 있다니 얼마나 큰 혜택인가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

의료설비들도 그쳤었지만 유선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과학연구를 위한 혁량도 나무랄데 없었다.

병진로선을 밟들고 각지에서 혁신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기술로 개진하기 위한 사업이 전군중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경제건설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공화국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내세우는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공화국창전 6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목표를 제기하고 당면한 봄철영농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되는 세포등판에서나는 기계화수단들에 의한 통관개간을 진행하고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한달동안에 수백만여그루의 나무묘를 심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세계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으로 맞서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사기자

들은 감상록에 너성들을 위하여 이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으로선을 밟들고 각지에서 생산적양양의 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다.

자랑찬 승리의 첫 포성은 천리마제 강련합기업소에서 윤석진의 불길은 북방의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증산의 불길은 북방의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자체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6만t능력의 분파압연기에서 12만t의 강관을 뿐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래웠었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달리는 천리마의 정신이 처음으로 창조된 이 기업소에서 오늘은 새로운

기자와 만난 1파장 조일룡 선생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는데 평범한 너성들을 위해 이렇듯 홋팅한 치료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나라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지난 해 12월 적십자국제위원회 표단의 한 성원으로 공화국을 방문한 프랑스의사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나서 현대적인 진단설비들이 그쯤이 갖추어져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처럼 홋팅한 곳에서 최상의 의료봉사를 받고있는 조선의 너성들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목적렌트렌트이며 CT설비, 유선촬영기와 유관내시경이며 유선조직절제기들 그리고 초음파진단설비며 심전도설비는 물론 수술도구 일식과 최신형마취기비를 비롯한 홋팅한 의료설비들이 다 갖추어져있었다.

외부와 3층으로 격폐되고 무균화가 실현된 수술실이며 수술후 치료를 받는 집중치료

들은 고려의학으로서는 일본 수술도구 일식과 최신형마취기비를 비롯한 홋팅한 의료설비들이 다 갖추어져있었다. 외부와 3층으로 격폐되고 무균화가 실현된 수술실이며 수술후 치료를 받는 집중치료

들은 고려의학

들은 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해간다

◎◎◎ 제 16 차 평양 철 국제 상품 전람회에서 ◎◎◎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 구위성 발사와 자위적 핵시험을 계기로 극도에 달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책 등을 갈수록 암살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과 광풍도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화국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 16 차 평양 철 국제 상품 전람회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힘으로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을 보여주었다.

도이췰란드,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중국 대북에서 온 많은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된 공화국의 발전된 전기 및 전자제품들과 경공업 제품, 식료품, 의약품, 건재 및 화학제품, 풍전기제 부문의 제품들이 출품되어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특히 공화국의 CNC 기계 설비들을 돌아본 아시아와 유럽의 기업 관계자들은 발전된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첨단 설비들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로 척척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의 과학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

최근 공화국의 문화예술, 정보기술 부문에서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무용보는 음악을 적은 악보와 같이 무용작품의 춤과 구도 등을 일정한 부호나 글자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은 이러한 무용보를 작성하고 편집, 인쇄하기 위한 전용편집도구이다.

공화국에서는 주체적인 자모식 무용표기법의 창제와 더불어 무용보를 인쇄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정하게 성과도 있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정보연구소와 피바다가 국단 조선무용연구소, 문화성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무용보편집프로그램 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그 어떤 무용보도 편리하면서도 주목할만 한 연구성과로 되고 있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세계적인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무용작품 창작의 정보화라는 데는 매우 큰 연구종자를 정보기술 부문에 암시하였으며 실지로 무용작품 창작의 프로그

습적 잠재력을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들의 소감을 표시하였다.

조선기계부역총회사에서 출품한 성능높은 천기에 자들파 소형만능드라프트, 《장백》호 기계식 굴착기, 유압식 굴착기들, 구성공작기계 무역회사에서 개발한 수자조종고속선반, 《CNC 구성6C》와 복구성 자동차를 전시한 조선해상무역회사 전시대와 함께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부흥무역총회사에서 온 한 일군은 자기

모습을 잘 알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폭평합성나노금강석을 출품한 조선련합무역회사 전시대와 결부속들을 출품한 광명합성회사 전시대, 강한 동력과 든든한 차체, 연료소모가 적은

부록성 자동차를 전시한 조선해상무역회사 전시대들도 역시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부흥무역총회사에서 온 한 일군은 자기들은 티탄자원의 개발과 티탄제품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

구들과 고급 전자류들, 만복합작회사에서 생산한 질좋고 맵시 있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봄가을, 여름, 겨울이 불 등이 그 대표적 실례였고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은 평양생물기술개발소, 봄향기 합작회사들에서 만든 많은 제품들도 바로 이런 경쟁바람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일용공업무역회사에서 출품한 TV시청기능과 무선전반기능 등을 갖춘 7in, 9.7in 판형 컴퓨터들, 가정주부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위생적인 주방가구를 마련해주는 예홍 합작회사의 현대적인 주방이

화가인 정선(1676~1759년, 호 경재)은 우리 나라 사설주의적 풍경화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의 창작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기 조국, 자기 고향의 아름다움을 능숙한 필법으로 격조높이 노래한 것이다. 그가 개척한 사설주의적 풍경화의 새로운 경지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

인것이었다.

그의 대표적 작품들로서는 《구룡폭포》, 《너럭비위》, 《옹천의 파도》, 《만폭동》 등이 있다.

특히 《구룡폭포》는 그 진실성과 생동성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정선은 이 그림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벼랑을 먹선을 죽죽 내리고 폭포를 강조하면서 천길벼랑의 웅장함을 잘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그림에서 안겨 오는 우아하고 장쾌한 모습은 구룡폭포의 아름다운 정경을 짐작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정선은 또한 풍경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은 당시 사람들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옛 문현인 《봉고집》에는 《…경재(정선)은 세밀한 곳

들이 늘어진 베드나무 숲 속을 가고 있는데 시동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중경에는 뾰얀 안개비 속을 빛나고 초가집들이 도간도간 보이는 듯한 현실을 보는 듯한 경정에 휩싸이게 된다.

정선은 이 그림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벼랑을 먹선을 죽죽 내리고 폭포를 강조하면서 천길벼랑의 웅장함을 잘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그림에서 안겨 오는 우아하고 장쾌한 모습은 구룡폭포의 아름다운 정경을 짐작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정선은 또한 풍경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은 당시 사람들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옛 문현인 《봉고집》에는 《…경재(정선)은 세밀한 곳



《가야금 라는 로인》

정선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자연과 인간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17~18세기 우리나라 풍경화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있는 실용성 있는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무용보의 편집과 인쇄를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모식 무용표기법의 수자화, 정보화를 실현 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표준화, 규격화 실현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국가과학기술상으로 등록된 이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의 개발은 콤팩트웨어 산업의 특색 있는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하여 정보기술부문에서도 주목할만 한 연구성과로 전진되었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은 아

고려시기에는 쌓은 성인 구주성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

고려시기에는 구성을 구주라고 불렀다. 구주라는 이름은 산줄기들이 수많은 가지를 뻗쳐 시내를 가로세로 내려져 모양이 마치도 거북장과 같다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구성은 고려시기 외래 침략자들을 쳐부시는데서 중요한 지역이었으므로 고려왕 정부는 이곳을 군사 중심지로 삼았다.

구주성은 구성의 북쪽에 있는 리구산의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쌓은 견고한 성성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구주성은 994년에 쌓았다고 한다.

구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은 예 구성읍을 에워싸고 쌓은 것이며 외성은 내성의 서북쪽에 덧붙여 쌓은 것이다. 내성의 둘레는 약 5km이고 외성의 길이는 약 1.5km 정도이다.

내성의 동, 서, 남, 북쪽

벽과 외성의 서쪽벽에는 문

터가 있다.

구성남문(구주성의 남문)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구성남문을 원상대로 복구할 때 한글 가을 가을을 주제로 한 가을 치장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구성남문이 옛 모습 그대로 복구되었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성벽 밑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지하문이 있다.

이것은 일단 유사시 군사들의 은밀한 행동을 보장하는데 리용된 것으로 서 다른 성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문형식을 띠고 있다.

구주성에는 또한 북장대, 서장대, 남장대 등 군사지휘처들이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구주성과 더불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강감찬을 비롯한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전이 사또에게 한 행수 기생이 죽었다는 것을 아뢰다가 생각한 말을 읊은지라 그만 엉겁결에 대부인 상사라고 유모아

3시 까지 가 좋다.

해빛 소독은 다음 해 철에 옷을 입을 때 까지 3~4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빛을 쪼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다.

웃소독은 해빛이 제일 세

게 비치는 아침 10시부터 낮

3시 까지 가 좋다.

해빛 소독은 다음 해 철에 옷을 입을 때 까지 3~4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빛을 쪼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다.

해빛을 쪼일 때에는 반드시 옷을 뒤집어 안이 밖으로 나오게 넣어야 한다.

본사기자

고려시기에는 쌓은 성인 구주성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

고려시기에는 구성을 구주라고 불렀다. 구주라는 이름은 산줄기들이 수많은 가지를 뻗쳐 시내를 가로세로 내려져 모양이 마치도 거북장과 같다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구성은 고려시기 외래 침략자들을 쳐부시는데서 중요한 지역이었으므로 고려왕 정부는 이곳을 군사 중심지로 삼았다.

구주성은 구성의 북쪽에 있는 리구산의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쌓은 견고한 성성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구주성은 994년에 쌓았다고 한다.

구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은 예 구성읍을 에워싸고 쌓은 것이며 외성은 내성의 서북쪽에 덧붙여 쌓은 것이다. 내성의 둘레는 약 5km이고 외성의 길이는 약 1.5km 정도이다.

내성의 동, 서, 남, 북쪽

벽과 외성의 서쪽벽에는 문

터가 있다.

구성남문(구주성의 남문)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구성남문을 원상대로 복구할 때 한글 가을 가을을 주제로 한 가을 치장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구성남문이 옛 모습 그대로 복구되었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성벽 밑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지하문이 있다.

이것은 일단 유사시 군사들의 은밀한 행동을 보장하는데 리용된 것으로 서 다른 성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문형식을 띠고 있다.

구주성에는 또한 북장대, 서장대, 남장대 등 군사지휘처들이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구주성과 더불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강감찬을 비롯한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전이 사또에게 한 행수

기생이 죽었다는 것을 아뢰다가 생각한 말을 읊은지라 그만 엉겁결에 대부인 상사라고 유모아

3시 까지 가 좋다.

해빛 소독은 다음 해 철에 옷을 입을 때 까지 3~4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빛을 쪼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다.

해빛을 쪼일 때에는 반드시 옷을 뒤집어 안이 밖으로 나오게 넣어야 한다.

본사기자

고려시기에는 쌓은 성인 구주성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

고려시기에는 구성을 구주라고 불렀다. 구주라는 이름은 산줄기들이 수많은 가지를 뻗쳐 시내를 가로세로 내려져 모양이 마치도 거북장과 같다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구성은 고려시기 외래 침략자들을 쳐부시는데서 중요한 지역이었으므로 고려왕 정부는 이곳을 군사 중심지로 삼았다.

구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은 예 구성읍을 에워싸고 쌓은 것이다. 내성의 둘레는 약 5km이고 외성의 길이는 약 1.5km 정도이다.

내성의 동, 서, 남, 북쪽

벽과 외성의 서쪽벽에는 문

터가 있다.

구성남문(구주성의 남문)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구성남문을 원상대로 복구할 때 한글 가을 가을을 주제로 한 가을 치장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구성남문이 옛 모습 그대로 복구되었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성벽 밑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지하문이 있다.

이것은 일단 유사시 군사들의 은밀한 행동을 보장하는데 리용된 것으로 서 다른 성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문형식을 띠고 있다.

구주성에는 또한 북장대, 서장대, 남장대 등 군사지휘처들이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